

후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일단 저질러 보라!

임인상 | ASML Korea 회장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한 일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이다. 한 일에 대한 후회는 대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단시일 내에 알기 때문에 시정이 가능하여 후회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야 깨

닫기 때문에 후회의 깊이도 깊고 오래 간다. '아~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이다. '생전에 부모님께 더 잘해 드릴 것을', '대학생 시절에 더 폭 넓은 경험을 쌓아 볼 것을' 하며 느끼는 후회이다.

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저질러라' 라고 주문한다. 할지 말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해보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설혹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또한 실패하더라도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값진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장학 재단에서 주관하는 코멘트(Korment) 프로그램이 있다. 사회에서 검증된 멘토와 대학생 멘티를 연결해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약 300명의 멘토와 2,4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2011년부터 멘토로 참여하였고 올해가 두 번째이다.

우리 팀에는 10명의 대학생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 년간 10번 정도 만나서 주제별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하고, 문화탐방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우리 팀의 주제는 '후회 없는 삶'이다.



학생들은 후회 없는 삶이란 많은 것을 이루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 지향적인 생각이다. 나는 이루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기는 것이 결과를 이루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해 주곤 한다. 결과를 즐기는 순간은 대개 짧다. 결과 지향적으로만 보면 목표하는 결과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결과를 향해 가기 때문이다. 100만 원을 모으면 곧 천만원을 모으고 싶고, 1,000만 원을 모으면 1억 원을 모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렇게 목표를 향해 계속 달리다 보면, 삶을 충분히 즐길 기회도 없고 자칫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홀해져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나는 가끔 대학에서 특강을 한다. 내가 지난 10년간 몸담고 있는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Dutch Management에 대한 내용이지만 삶에 대해 이야기로 마무리 한다. 삶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가다 보면 정상에 도달한다. 성공도 이와 같이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목표를 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나도 돌이켜보면 대학교 전공은 조선공학과였고, 대학원 때는 기계공학이였으며, 사회에서는 경영자로 변신하여 30년간 활동하였고 이제는 리더십 코치도 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일찍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 많은 시간 방황한다. 그때 내가 즐겨 쓰는 표현은 '인생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이다. 사막을 건널 때는 목표가 눈에 잘 보이지 않

는다. 그냥 방향만 잡고 묵묵히 가는 것이다. 이때 방향이란 신뢰받는 사람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겠다든지 하는 가치관에 기반을 둔 방향이면 더욱 좋다. 가다 보면 목표가 생기기도 한다. 결국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된다.

나는 학창시절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만 받을 수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것이 어떤 기회 일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러나 지난 40년을 돌이켜 보면 경영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화목한 가정을 이룬 것도,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리더십 코치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한 방향으로 꾸준히 살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멘토링을 하면서 자신감 부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대학생들에게 팽배해 있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만족도가 최하위라고 한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저질러 보자'는 주도적인 자기 확신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자'는 긍정적인 사고가 이 불안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확신하며 대학생들에게 주문한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저질러 보라'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에서 기계공학 석, 박사를 취득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 CEO로서 25년간 근무한 전문 경영인이다. 현재 ASML Korea 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제주대학교 초빙교수와 (주)코칭경영원의 파트너 코치로도 활약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부하라' (공제)가 있다.
